

정기명 여수시장,소통행보 첫 걸음 ‘권역별 현장간담회’ 마무리

취임 후 3개월 간 17개 현장 방문...현안·민생 점검 주력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현장 찾아 시민과 소통 할 것”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7일 이순신공원 현장 방문을 끝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민생 점검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처음 선보인 권역별 현장간담회는 8월 25일 중앙동 고소천사 벽화마을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3개월간 주요 공약사항, 현안사업, 집단민원, 장기 미해결사업과 관련한 17개 현장에서 진행됐다.

정 시장은 ▲중앙동 꿈뜨락몰 ▲도성지구 새뜰마을사업 ▲월내매립장 ▲조·명 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주요 현장에서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계획과 미비점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수차례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8월 3일 남면 현장간담회를 통해 금오도 주민들이 거듭 제안한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전라남도의 최종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정 시장의 소통행보에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33건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현장을 찾아 시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광양시, 마을 기록 아트워크 ‘나의 마을 일지’ 전시회 개최

오는 12일부터 섬진강끝마을 작은미술관에서



광양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청년 예술인 문화동행마을 ‘나의 마을 일지’ 전시회

를 오는 12일부터 섬진강끝마을 작은미술관에서 개최한다. ‘나의 마을 일지’는 청년 예술인과 마을 주민의 문화예술 교류와 상호 성장을 목표로 하며, 예술을 매개로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다양한 분야(조소·조각·터프팅·사진·디지털 그래픽)의 지역 청년예술인 5인을 선정하고, 지난 8월부터 섬진강끝마을에서 주민과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하며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결과물(아트워크)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는 ▲양정일 작가의 ‘우리의 이야기’ (추동마을) ▲강윤문 작가의 ‘돈탁마을을 기록하다’ (돈탁마을) ▲양정일 작가의 ‘우린 아직 청춘일지도’ (사평마을) ▲이수빈 작가의 ‘오늘의 추억’ (오추마을) ▲정보석 작가의 ‘삶의 그대로 스미다’ (신기마을) 등 작품 20점이 전시된다.

광양=김현근 기자

보성군, ‘보성키위’ 지리적표시 제111호 등록

18일 개최되는 ‘제2회 보성 키위축제’에서 지리적표시 선포식 예정



보성군은 ‘보성키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인 보성에서 약 40년 이상의 오랜 재배역사를 간직한 ‘보성키위’는 키위 품목으로는 최초로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획득했다. ‘보성키위’는 알이 크고 과색이 선명하며 당

류 함량이 높아 키위 특유의 달콤한 풍미가 강하며 조직감이 우수한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온화한 기후로 키위 생산에 적합하며, 보성군은 연간 4,500t가량의 키위가 생산되는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다. ‘보성키위’를 지리적표시로 등록하기 위해 보성군은 지난 2019년도부터 1, 2차에 걸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현지 확인과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4년여 만에 지리적표시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보성군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제2회 보성키위축제’에서 ‘보성키위’ 지리적표시 등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적표시 등록증 전달식을 가질 계획이다.

보성=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순천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운집 행사의 사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등에 안전관리 조치 조항을 명시해 순천시장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기존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순천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 행사는 제외되어 있었다. 제정·조례안 제5조에는 순간 최대 예상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 1일 최대 다중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인 행사의 경우 순천시장이 순천경찰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조례안 제6조에는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해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 남양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기대 ↑

내년 1월부터 남양마을 69세대 가스 공급

고흥군 남양면 남양마을 ‘LPG 배관망 시설공사’를 11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마을에 소형 저장탱크, 가스 공급배관 및 사용자 시설(보일러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도에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군에서는 남양마을이 사업 대상에 선정돼 9월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12

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912백만원을 투입해 남양마을 69세대가 내년 1월부터 LPG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근 남양면장은 “최근 기름 값 폭등에 의한 주거 난방비 부담으로 주민들의 겨울 난방비 걱정이 컸다”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난방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